

## 여성살인범의 범행관련 특징과 PAI에 나타난 성격특성

김시엽<sup>†</sup> 이혜선 손지선 전우병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살인 범죄로 수감된 여성범죄자의 범죄의 동기나 범죄상황적인 제반 범행 관련 특징 및 성격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 재소자에게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범죄관련 사항 등을 묻는 설문지와 성격평가질문지(PAI)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 중 살인을 행한 109명이었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 중 68%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범행당시 음주 여부에서는 반 이상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의 피해자가 대부분 남성, 특히 남편이 대부분이었으며, '피해자와 싸우던 중'이 살인의 가장 많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살인집단의 하위척도 분석 결과의 특징은 각 척도들 간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저빈도 척도, 긍정적 인상척도, 생리적 우울척도, 원한척도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자극추구척도, 정신병적 경험 척도, 정체성 문제척도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여성살인범, 범죄동기, 성격특성, PAI, 살인범죄

---

<sup>†</sup> 교신저자 : 김시엽,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E-mail : [mind@kyonggi.ac.kr](mailto:mind@kyonggi.ac.kr)

오늘날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범죄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범죄 중 약 15% 내외를 차지하는 여성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2003)에 따르면, 1993년에 207,707명이던 여성범죄자 수는 2002년에는 342,338명으로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64.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간의 증감을 보면 1997년, 2000년, 2001년을 제외하고는 1993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전년대비 24,584명, 7.2%가 증가하였는 바, 이는 IMF구제금융 관리체제하의 경제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2000년에는 전년대비 35,562명, 9.8%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 다시 전년대비 16,629명, 5.1%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전년대비 2,417명, 0.7% 감소하였다. 여성범죄자가 전체 여성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여성인구 1,000명당 14.0명이고 전체 범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003)에 따르면, 전체 여성범죄자는 342,338명이었으며, 살인, 강도, 폭행 등을 포함한 강력범죄는 66,776명이었다. 그 중 살인은 119명으로 범행이유로는 '우발적'인 살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불화가 11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범죄에 있어서 성별을 비교하는 일부 연구들이 있지만, 대부분 범죄빈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순진(1999)은 여성 범죄자의 경우, 범죄 유형

(살인, 폭행, 상해)에 따라 피해자의 성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폭행·상해를 저지른 여성범죄는 여성 피해자(76.9%)가 남성 피해자(23.1%)에 비해 두 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살인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30.6%, 남성 피해자는 69.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살인범죄자의 경우 가장 흔하게 공격하는 대상이 동성인 여자가 아니라 이성 배우자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를 가족, 지인, 타인으로 구분한 결과에서는 범죄자가 여자인 경우에 피해자는 가족 63%, 지인 33%, 타인 4%로 각각 집계되어, 남자 범죄자의 경우(가족, 25.2%; 지인, 46.5%; 타인, 28.3%)에 비해, 가족 피해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타인 피해자 비율이 아주 적게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은 범죄행위에서 남성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폭력범죄 특성에 대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의 폭력범죄가 남성과 비교해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Agnew(1992)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분노를 표현하도록 사회화되지 않기 때문에 폭력범죄율이 낮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분노란 부정적 결과에 대해 외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점에서 여성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 실망하거나 우울한 정서를 갖게 되는 등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노를 내재화하는 여성은 스트레스가 증가되지만, 일탈적 반응을 표출하지는 않는다. 즉, 분노를 내재화한 여성은 스트레스가 많더라도 분노의 표현을 자제하며, 대신 간헐적으로 극단적인 폭력을 행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성은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극단적

인 폭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여성 살인범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Ogle 등, 1995). 또한 남녀 폭력의 상황 차이를 연구한 Heimer와 Coster(1999)는 여자는 대인갈등의 결과로 폭력을 행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하였다. 여성의 대인폭력범죄(살인, 폭행, 강도, 강간)에 초점을 맞춘 연구(Kruttschnitt, 1993)에서 폭력유형에 관계없이 여성의 폭력범죄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김상균(2001)이 살인 혐의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살인범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 살인 범죄자의 범행 피해자가 남편이라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36명(45%)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안면 정도 있는 사람’이 14명(17.5%)으로 두 번째이고, ‘애인 및 친구, 직장 동료’와 ‘모르는 사람’이 각각 8명(10%)으로 같은 비율이었고, ‘부모형제’는 6명(7.5%)으로 집계됐다. 이 연구에서 여성에 의한 살인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은 일반적 살인사건과 비슷했지만 남편이나 부모형제 등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52.5%)가 특히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여성 살인범의 경우 남편 등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모욕이나 폭행으로 심한 자존심의 손상 경험을 참고 지내다, 음주 등으로 화가 났거나 우울한 정서에서 분노가 폭발, 살인을 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폭력 범죄자의 재범 유형에 대한 연구 (Verona & Carbonell, 2000)는 일회적 폭력범죄

자, 폭력재범자, 비폭력범죄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일회적인 폭력범죄자가 적대감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향이 높는데 반해, 폭력 재범자는 자극에 더 반응하며, 공격적 자극에 대해 억제하는 경향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일회적 폭력범죄자는 살인범죄자가 많았으며, 폭력재범자는 대부분 폭행범죄자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여성범죄자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상황에 대한 빈도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국외 연구에서는 빈도에 관한 연구 뿐 아니라, 분노나 적대감 등의 감정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하는 여성범죄자에 비해서 여성범죄자의 범행과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절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여성범죄자의 피해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당시의 주요 상황, 범죄 촉발에 대한 지각 등과 같은 범행 관련 특징 및 범죄자의 성격특성을 PAI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즉, 여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범죄 행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제반 범행 관련 특징과 성격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여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 살인범죄자들의 범행과 관련된 특징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여성 살인범죄자들의 독특한 성격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방법

####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조사는 2004년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PAI 성격검사를 실시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우리나라의 하나밖에 없는 여성전담 교정시설로서, 그 대상은 전국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형이 확정된 여자수형자, 여자 가석방 예정자, 외국인 여자 수형자(전담소),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 여자 지체부자유 수형자, 여자 노역장 유치 수용자 및 일시수용자, 초범 이상 여자 수형자이다. 한국의 유일한 여성교도소인 청주교도소에는 약 600명의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었고, 그들 중 250명 정도가 살인범이다. 250명의 살인여성범죄자 중 조사 당일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120여 명을 제외하고 131명에게 교도관의 협조하에 본 연구자들이 직접 설문지와 PAI를 실시하였고(이들은 외부자들에 의해 조사대상이 된다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교도소라는 특수 환경의 제도적 제한 때문에 조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불성실하게 응답된 22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109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범죄명	사례수(%)
살인, 상해치사, 강도살인, 살인 및 시체유기	100(91.7)
존속살인, 존속유기치사	2( 1.8)
살인미수	3( 2.8)
살인교사	3( 2.8)
방화치사	1( 0.9)
전체	109(100.0)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 사례수(%)

변인	사례수(%)	
연령	10대	5( 4.6)
	20대	14(12.8)
	30대	30(27.6)
	40대	45(41.2)
	50대	11(10.1)
	60대	4( 3.7)
결혼여부	미혼	32(29.4)
	기혼	77(70.6)
학력	초등학교	16(14.7)
	중학교	27(24.7)
	고등학교	55(50.5)
	대학교	11(10.1)
전체	109(100)	

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자들의 살인 범죄는 살인, 상해치사, 강도살인, 살인 및 시체유기, 살인 및 윤락행위방지법위반, 존속살인, 존속유기치사, 살인미수, 살인교사, 방화치사 등이다(표 1 참조). 또한 이들의 연령대, 결혼여부, 학력을 표 2에 제시해 놓았다.

#### 측정도구

##### 설문지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이고 배경적인 특성인 학력, 직업 및 경력과 같은 가족 및 성장배경, 그리고 이전 범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시의 상황, 비행경력이나 학대경험을 포함한 범죄관련 배경 등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평가 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PAI(Morey, 1991)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임상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고 표준화된 성격검사로써 자기보고형 검사지이다. 이 검사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치료계획의 수립과 치료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중요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검사는 총 3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타당성 척도, 11개의 임상척도, 5개의 치료척도, 2개의 대인관계척도 등 서로 다른 영역을 평가하는 척도들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은 4지 선다형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중간이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기 0점, 1점, 2점, 3점으로 채점한다.

한국판 PAI 표준화 검사는 2001년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에 의해 표준화되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PAI의 각 척도의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PAI를 측정도구로 삼은 까닭은 PAI가 만들어진지 오래되지 않아, 그 문항 내용이 현대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고,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김영환 등(2001)에 의해서 표준화 작업이 잘 이루어져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검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료분석**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범행관련 변인들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여성 살인집단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살인집단의 PAI 하위척도를 분석하였다.

표 3. PAI 하위척도들의 신뢰도 계수

PAI 하위 척도	신뢰도계수( $\alpha$ ) <sup>1)</sup>	신뢰도계수( $\alpha$ ) <sup>2)</sup>
타당도		
비일관성	.69	.7385
저빈도	.32	.6680
부정적 인상	.70	.4397
긍정적 인상	.69	.7426
전환	.74	.5718
신체화	.76	.4341
건강염려	.60	.7943
인지적 불안	.71	.4910
정서적 불안	.67	.3598
생리적 불안	.72	.6143
강박증	.54	.6596
공포증	.53	.4672
외상적 스트레스	.77	.6641
인지적 우울	.69	.6731
정서적 우울	.79	.6317
생리적 우울	.69	.7869
활동 수준	.50	.5910
과대성	.73	.3964
초조성	.79	.1212
과경계	.50	.2762
피해의식	.71	.5508
원한	.61	.7177
정신병적 경험	.56	.7459
사회적 위축	.63	.5518
사고장애	.74	.6926
정서적 불안정	.69	.5622
정체성문제	.58	.6624
부정적 관계	.38	.7585
자기손상	.68	.4786
반사회적 행동	.56	.7026
자기중심성	.55	.6817
자극추구	.67	.7321
음주문제	.82	.3262
약물사용	.62	.4113
공격적 태도	.71	.7078
언어적 공격	.29	.6403
신체적 공격	.59	.7374
자살관념	.77	.6037
스트레스	.75	.8237
비지지	.62	.4851
치료거부	.61	.6475
대인관계		
지배성	.74	.4203
온정성	.77	.5055

1)은 김영환 등(2001)의 PAI 신뢰도계수

2)는 본 연구의 신뢰도계수

## 결 과

### 여성 살인범죄자의 범죄와 관련된 특성

####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

여성 살인범죄자들의 부모관계의 질에 대한 지각의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여성 살인범죄자와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좋다’가 55명(50.5%), ‘상당히 좋다’가 19명(17.4%)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살인범죄자들의 상당수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67.9%)고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다만 이런 결과가 살인 여성 범죄자들의 실재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왜곡반응인지, 아니면 범행 후 후회와 수감생활로 인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범죄 행위시 음주여부

표 5는 범죄당시 음주여부를 나타내는데, 58

		사례수(%)
	매우 좋다	55(50.5)
	상당히 좋다	19(17.4)
부모관계	보통이다	30(27.5)
	상당히 나쁘다	5( 4.6)
	매우 나쁘다	
전체		109(100.0)

		사례수(%)
음주 여부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	58(54.2)
	마셨으나 취하지 않은 상태	14(13.1)
	마시고 취한 상태	35(32.7)
전체		107(100.0)

명(54.2%)이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술을 마신 경우가 49명(45.8%)인 것을 보면, 살인은 음주와 상당히 높은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를 대부분 정상적인 정신적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살인이라는 범죄가 정상적 정신 상태하의 매우 격한 충동적 행위였을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피해자 성별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74명(68.5%)으로 가

		사례수(%)
피해자 성별	남성	74(68.5)
	여성	32(29.6)
	남성+여성	2( 1.9)
전체		108(100.0)

		사례수(%)	
피해자 관계	남편	43(39.8)	
	자녀	1( 0.9)	
	남편+자녀	1( 0.9)	
	친밀한	친정부모	3( 2.8)
	친정가족	3( 2.8)	
	시집가족	3( 2.8)	
	형제, 자매		
	전 남편	1( 0.9)	
	애인	9( 8.3)	
	친구	6( 5.6)	
지인	상당히, 약간 아는 사람	32(29.6)	
타인	전혀 모르는 사람	6( 5.6)	
전체		108(100.0)	

	사례수(%)
내가 피해자와 심하게 싸우던 중	68(67.3)
나는 피해자와 조용히 대화하던 중	5( 5.0)
나와 피해자가 우연히 만나던 중	1( 1.0)
나와 제3자가 싸우던 중	2( 2.0)
피해자와 제3자가 싸우던 중	5( 5.0)
내가 일하던 중	4( 4.0)
피해자가 일하던 중	3( 3.0)
피해자가 쉬거나 자고 있던 중	13(12.9)
전체	101(100.0)

장 많았다. 이는 표 7과 표 8을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즉, 살인의 경우 남자 피해자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배우자나 애인 등의 친밀한 사람이 피해자였다.

#### 피해자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보면, 남편이 43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친밀한 사람(남편, 자녀, 남편과 자녀, 친정부모, 친정가족, 시집가족, 형제자매, 전남편, 애인, 친구), 지인(상당히, 약간 아는 사람), 타인(전혀 모르는 사람)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친밀한 사람이 70명(64.8%)으로 가장 많았다. 즉, 여성 살인범의 경우 친밀한 사람과 지인을 합치면 102명(94.4%)으로 절대 다수가 이는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건 상황에 대한 인식

사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심하게 싸우던 중'이었다는 응답이 68명(67.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3명(12.9%)이 '피해자가 쉬고 있거나 자고

있던 중'에 범행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 사건 촉발자에 대한 지각

사건 발생 촉발자는 '누가 먼저라고 말할 수 없다'가 각각 35명(33.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가 먼저 욕하거나 싸움을 걸어서'가 33명(31.1%)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여성살인범의 많은 수(60명, 56.6%)가 사건의 촉발자로 매우 분명하게 상대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볼 때, 자신의 범죄행위의 원인을 타인의 탓으로 귀인하는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범행 동기에 대한 지각

범죄자들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성격관련 '가정불화'가 27명(24.8%),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갈등, 질투 등'이 21명(19.3%),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가 21명(19.3%)으로 나타났다. 한편, 범행 동기 중 '가정불

	사례수(%)
내가 먼저 욕하거나 싸움 걸어서	2( 1.9)
상대가 먼저 욕하거나 싸움 걸어서	33(31.1)
상대가 먼저 폭행을 사용해서	18(17.0)
내가 먼저 말이나 주먹이 아닌 다른 도구(재떨이, 몽둥이등)사용	6( 5.7)
상대가 먼저 말이나 주먹이 아닌 다른 도구(재떨이, 몽둥이등)사용	9( 8.5)
누가 먼저라고 말할 수 없다	35(33.3)
기타	3( 2.8)
전체	106(100.0)

표 10. 범행동기에 대한 지각	사례수(%)
가정불화(돈)	15(13.8)
가정불화(성격)	27(24.8)
범 가족 아닌 사람과의 갈등, 질투 등	21(19.3)
행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21(19.3)
동 생활비 마련 위해	3( 2.8)
기 유흥비 마련 위해	0( 0.0)
단지 술에 취해서	6( 5.5)
기타	16(14.7)
전체	109(100.0)

화(돈)', '생활비 마련 위해'를 돈 관련 동기로 묶었고, '가정불화(성격)',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갈등, 질투, 등'은 감정관련 동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단지 술이 취해서'등은 우발적 동기, '단지 술이 취해서'등은 우발적 동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11 참조).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 관련 동기가 48명(51.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더 나아가 '우발적 동기'의 본질이 감정의 문제라는 점에서, 우발적 동기를 감정관련 동기에 포함시킨다면, 여성 살인범의 범행동기 중 '감정'이 가장 큰 범행촉발 요인일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여성 살인범죄자의 성격적 특성

여성 살인범죄자의 성격특성은 PAI 성격특

표 11. 범행동기의 범주	사례수(%)
돈 관련 동기	18(19.4)
범행동기 감정관련 동기	48(51.6)
우발적 동기	27(29.0)
전체	93(100.0)

성검사로 알아보았는데, PAI의 각 하위척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한국판 PAI(김영환 등, 2001a)의 평균 신뢰도는 성인집단 .76, 대학생 표준화 표본 .77, 임상표본 .73으로 나타났고, 최하 .29에서 최고 .82의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 실시한 여성 범죄자의 신뢰도 수준은 최하 .12에서 최고 .82의 수준으로 범위에서는 한국판 PAI에서 비슷하였으나, 각 척도별로 신뢰도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낸 척도들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6이상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낸 척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 PAI의 하위척도 분석

그림 1은 여성 살인범죄자 집단의 PAI 하위척도 점수를 프로파일로 나타낸 것으로, 이들의 성격특성을 각 하위척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 타당도 척도 분석

우선, 타당도척도는 비일관성, 저빈도, 부정적인상, 긍정적인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척도들은 검사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살인집단에서의 비일관성 T점수는 50.05점으로 64점 이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성 살인범들이 일관성있게 반응했고, 문항내용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빈도 T점수는 54.45점으로 60점 이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항내용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살인집단의 부정적인상 T점수는 51.31점으로 73점 이하에 해당한다. 이는 임상척도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 살인집단의 긍정적인상 T점수는

그림 1. 여성 살인범죄자 집단의 PAI의 프로파일

54.39점으로 44~57점에 해당한다. 이는 수검자가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반응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타당도 척도의 T점수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대상인 살인집단의 PAI 해석은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임상척도 해석**

임상척도는 신체적 호소, 불안, 불안관련 장애, 우울, 조증, 망상, 정신분열증,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음주문제, 약물사용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척도들은 3~4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각 하위척도별 분석 결과이다.

신체적 호소의 하위척도는 전환, 신체화, 건강염려가 있으나, 이 중 적절한 신뢰도를 보인 건강염려척도만 분석해 보았다. 살인집단의 건강염려의 T점수는 50.78점으로 이 점수 역시 평균에 해당하며,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결과만으로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불안의 하위척도는 인지적 불안, 정서적 불안, 생리적 불안이 있는 바 이 중 생리적 불안만이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살인집단의 생리적 불안의 T점수는 50.56점으로 평균수준이며, 불안관련 신체증상을 특별히 많이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안관련 장애의 하위척도는 강박증, 공포증, 외상적 스트레스이다. 이 중 강박증과 외상적 스트레스가 신뢰로웠다. 살인집단의 강박증의 T점수는 48.23점으로 해석적 의미가 있을 만큼 높은 점수는 아니다. 살인집단의 외상적 스트레스 T점수는 52.26점으로 이 역시 보통 수준이며, 이러한 결과들에서 과거에 학대 등의 고통스러운 외상을 경험하지는 않은 것을 나타내며, 개인적 특성에서 살인집단이 부모들과 대체로 관계가 좋았다고 지각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울의 하위척도는 인지적 우울, 정서적 우울, 신체적 우울이다. 이 모든 척도에서 적절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살인집단의 인지적 우울 T점수는 50.49점으로 60점 이하로 평균에 해당한다. 이는 이들이 비관적이거나 자신감이 낮다거나 자기애적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살인집단의 정서적 우울 T점수는 51.27점이다. 이 역시 평균 수준을 나타내는 바, 슬픔이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흥미의 상실 및 과거에 개인적으로 즐기던 일들에 대한 즐거움의 상실은 특별히 있지 않으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살인집단의 생리적 우울 T점수는 53.38점으로 이는 에너지 수준과 성적 관심 저하, 식욕상실과 체중 감소 등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결과는 여성살인범이 우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결과인 바, 모든 범죄자들에게 이럴 개연성이 높지만, 특히 여성 살인범은 ‘감정’이 격발하여 범행을 저질렀지만, 일단 형확정이 되고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포기’나 ‘체념’상태의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한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망상의 하위척도는 과경계, 피해의식, 원한이다. 이 중 ‘원한’척도만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살인집단의 원한의 T점수는 53.24점으로 평균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과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경험에 집착하고 자신이 받은 만큼 똑같이 보복하려는 생각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런 결과를 살인집단의 범행관련 개인적 특성과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이 원한 척도의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평균 정도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것은 원한의 대상자를 이미

제거한 상태로 더 이상 원한의 감정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정신분열병의 하위척도는 정신병적 경험, 사회적 위축, 사고장애 등이다. 이 중 정신병적 경험 척도는 적절한 신뢰도를 보이는 바, 살인집단의 정신병적 경험 T점수는 46.16점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살인집단의 사고장애 T점수는 46.41점이다. 이는 지리멸렬한 사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구사하는 극단적인 증상이나, 집중력, 의사결정 및 기억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증상도 없음을 나타낸다.

경계선적 특성의 하위척도는 정서적 불안정, 정체성문제, 부정적 관계, 자기손상이다. 이 중 정체성 문제나 부정적 관계 척도가 적절한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살인집단의 정체성문제의 T점수는 46.30이다. 정체성문제는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에 더 흔하게 나타나므로 연령과 관련이 있는데, 18~19세일 경우 평균T점수는 55점이고, 60세 이상일 경우 평균T점수는 46점이다. 따라서 살인집단은 평균정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고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살인집단의 부정적 관계 T점수는 48.02점으로 평균에 속한다. 이는 가족, 배우자를 포함한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애착관계가 강렬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사회적 특성의 하위척도는 반사회적 행동, 자기중심성, 자극추구 등이 있다. 이들 모든 척도는 적절한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는 바, 살인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의 T점수는 48.43점으로 평균 수준에 속한다. 이 척도는 현재와 관련된 문항이 아니라 과거 경험에 관한 문항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따라 상승하는 정도가 결정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여성 살인범들이 과거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과거에 있었던 비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다. 살인집단의 자기 중심성 T점수는 46.88점이며, 이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당한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살인집단의 자극추구 T점수는 44.38점으로 이들은 새로운 것과 자극을 추구하고 흥분을 즐기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4.38점은 평균에 속하지만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소심하고 새로운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 치료고려척도 해석

치료고려척도는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거부 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공격성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공격성의 하위척도는 공격적 태도, 언어적 공격, 신체적 공격이다. 이들 모든 하위척도는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살인집단의 공격적 태도 T점수는 51.42점이다. 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인내심이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살인집단의 언어적 공격의 T점수는 49.9점이다. 이는 평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럴 경우 분노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가능한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살인집단의 신체적 공격의 T점수는 47.28점으로 이는 분노와 충동을 잘

통제하고 분노폭발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여성살인범죄자들의 평소 공격성 관련 성향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도 잘 참고 표출하지 않는데 비해서, 분노가 극한점에 이르렀을 때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표출시킴으로써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살인집단의 자살관념 T점수는 51.12점으로 이는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살인집단의 스트레스의 T점수는 49.98점으로 일상생활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며 평온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치료거부의 T점수는 52.07점으로 이는 현재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같은 결과들에서 여성살인범죄자들이 '형량정'과 '죄값'을 치루고 있는 수감생활로 인해 과거의 범행과 관련된 심리적 불안정이나 심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있다고 추정된다.

#### 대인관계 척도 해석

대인관계 척도는 지배성, 온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뢰롭지 않게 나와 해석에서 제외시키겠다.

#### 여성살인범죄자 집단 PAI의 하위척도들 간 비교의 특징

하위척도 분석에서 특징적인 것은 저빈도척도, 긍정적 인상척도, 생리적 우울척도, 원한척도에서의 높은 점수와 자극추구척도, 정신병적 경험척도, 정체성문제척도에서의 낮은 점수이다. 이 점수들은 임상적으로 모두 평균에 속하는 점수이나, 살인집단의 각 척도의 평균 점수

들 간을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점수의 척도와 비교적 낮은 점수의 척도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살인집단의 하위척도 결과에서 비교적 특징적으로 높거나 낮은 척도들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낸 척도 중 저빈도 척도는 임상적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수검자들이 유사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항들은 전체 문항에 골고루 포함시켜 반응과정에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적 수검태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살인집단에서의 저빈도 T점수는 54.45점인데, 이는 60점 이하에 해당하므로 평균에 속하는데, 이는 수검자가 문항 내용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점수가 전체 살인범의 평균점수임을 고려해 볼 때, 중간 정도의 상승까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수검자가 이 척도의 문항에 대해 특이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중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을 경우 독해력 결함, 무선반응, 정신적 혼란, 부주의, 무관심, 채점오류, 검사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 등과 같은 잠정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 척도의 T점수가 이렇게 높을 경우 해석적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을 반영한다.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낸 척도 중 긍정적 인상은 수검자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했거나 어떠한 사소한 결점도 부정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들은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서 시인빈도가 낮은 문항이지만, 정상집단보다 임상집단의 시인율이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인상 점수가 T점수 58점 이하이면 수검자가 비현실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시도하

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의 살인 집단의 T점수는 54.39점으로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점수 역시 전체 살인범의 다른 하위척도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임을 감안할 때, 여성살인범죄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통적인 결점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낸 척도 중 생리적 우울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생리적 증상과 수면, 식욕 및 성욕장애 등과 같은 생리적 특징을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 경우 우울을 신체적인 형태로 경험하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체기능, 활동 및 에너지 수준의 변화, 수면장애, 성적 관심의 저하, 식욕상실과 체중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의 비교적 높은 생리적 우울은 교도소 수감 생활의 규칙적인 일상과 비교적 단조로운 일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낸 척도 중 원한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질투심 및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공정하게 대한다는 느낌과 관련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 경우 모욕당했거나 멸시 받았다고 느끼고 이와 관련해서 원한을 가지는 것이다.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운에 귀인 시키려는 경향을 반영하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목적달성이나 성공을 도와주지 않는 태도를 나타낸다. 살인집단에서 원한 T점수는 53.24점은 60점 이하로 평균에 속하지만, 전체 하위척도의 점수 중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중간 정도의 상승은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민감한 사람이고, 자신에

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살인 집단이 주로 감정적인 동기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살인은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상대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반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낸 척도 중 자극추구는 위협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 경우 무모하게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위협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흥분과 자극을 추구하고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것에 대해 쉽게 싫증을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살인집단의 자극추구 T점수는 44.38점으로 18~19세의 평균 T점수인 53점에 비해 낮은 점수이다. 이것은 살인집단의 평균 연령이 30~40대인 것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살인집단의 특성이 매우 소심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일상적인 일이 흐트러지면 거북하게 느끼기 쉬운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낸 척도 중 정신병적 경험은 정신분열병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기술한 것으로 비일상적인 지각과 마술적 사고에서부터 일급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기까지 심각성이 다양한 양성증상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살인집단의 정신병적 경험 T점수는 46.16점으로 평균 이하 수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살인집단이 정신병적인 문제와는 상관이 없으며, 대체로 정상적인 현실검증 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낸 척도 중 정체성 문제는 정체감이나 자기감과 관련해서 자기개념이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불

확실한 느낌과 목적의식의 상실을 나타낸다. 살인집단의 정체성 문제 T점수는 46.30점으로 이것이 전체 살인범의 평균 점수임을 감안할 때, 45점 이하의 낮은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고정된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럴 경우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정체성에 강한 부정적인 요소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치료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살인집단의 하위척도 결과들의 특징은 첫째,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반응을 했지만, 독해력 결함, 무선반응, 부주의, 무관심의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긍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신체기능의 저하와 활동 및 에너지 수준의 변화로 인해 수면장애, 성적 관심의 저하, 식욕상실 등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살인집단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흥분과 자극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것에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다. 여섯째, 현실 검증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고정된 자기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살인범죄자들의 범죄와 관련된 제반 특징 및 성격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여성 살인범죄자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호오의 지각정도나 범죄당시의 상황, 범죄동기 등 같은 범죄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했다. 또한 여

성 살인범죄자들의 성격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살인집단의 PAI의 하위척도 결과들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범행관련 특징은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 그 중에 남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음주한 상황, 감정적인 격분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살인집단의 하위척도 결과의 특징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일상적인 것에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쉽게 받고, 이에 대해 악의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여성 살인범죄자들 중 50% 이상이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살인 범죄자들은 특정한 사람, 즉 피해자와의 관계는 좋지 않지만, 그들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체로 좋을 수 있음을 측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가족관계의 실제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지각과 이미 범위가 발생되고 형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의 가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상태와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자기 보고식 설문지 조사연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응답왜곡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본 연구의 모든 결과를 해석할 때 전반적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이다.

또한, 범행 당시 음주여부를 알아본 결과, 54.2%가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로 가장 많으나, 45.8%가 음주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면 살인은 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국내의 살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김상

희, 1991)와 유사한 결과로 음주 상태가 범행 상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범행의 대다수가 격정적, 우발적으로 저질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 피해자 성별에서는 60%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살인 범죄에서 여성이 가해자일 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면식관계가 21.8%, 가족 및 애인관계가 74.7%, 무관계가 3.4%로 나타난 김상희(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성에 의한 살인 행위는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지고, 가족구성원, 특히 남성 파트너들이 대개 피해자였으며 낯선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는 드물다는 결과와 일치한다(Goetting, 1988; Husain, 1983; Jurik 등, 1992; Rogde, 1992).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이 자주 상호작용하는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또한 상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심리적 좌절을 경험할 기회가 많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에서는 특히 여성들은 상대에게 심리적 불만이나 분노를 적절한 기회에 표출하지 않고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여성 살인범죄자는 이와 같이 억제된 분노를 일시에 표출함으로써 살인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건 상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심하게 싸우던 중'이 가장 많은 상황이었다. 이 결과는 핀란드에서 1982년부터 1992년까지의 여성 살인범에 대한 연구(Hanna 등, 2001)와 일치하는데, 연구에서는 피해자와의 싸움 상황이 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의 살인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평소 억제된 분노가 싸움으로 인해 촉발되어 우발적으로 나타난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위에서 본 음주상황과 함께 여성 살인의 유발성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사건 유발자에서 ‘누가 먼저라고 말 할 수 없다’가 가장 많은 이유로 나타났고, 상대가 먼저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6.6%(60명)으로 외부귀인을 하는 경향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합리화하는 경향이 많았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감정 관련 동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폭력 여성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전영실, 2004)와 유사한 결과로, 여성의 살인은 범행으로 얻어지는 다른 이익을 위해 저지른 도구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PAI 하위척도를 분석한 결과, 우선 타당도 척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일관성 척도, 저빈도 척도 모두에서 평균범위에 해당하며, 이는 수검자가 일관성 있게 반응을 했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정적 인상척도와 긍정적 인상척도 역시 평균범위에 해당한다. 이 결과들은 여성 살인 범죄자들이 검사의 결과가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솔직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PAI의 여타 하위척도를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 임상척도를 살펴보면, 모든 척도에서 평균 범위의 T점수를 보여 특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임상적 특성은 없었다. 그러나 임상척도의 하위척도인 망상척도의 원한과 우울척도의 생리적 우울에서 하위척도의 T점수가 높게 나타나, 임상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 경향성을 살펴볼 수는 있다. 즉, 원한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질투심 및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공정하게 대한다는 느낌과 관련되어 있다. 이 점수가 높을 경우 모욕당했거나 멸시 받았다고 느끼고 이와 관련해서 원한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운에 귀인 시키려는 경향을 반영하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목적달성이나 성공을 도와주지 않는 태도를 나타낸다. T점수의 중간 정도의 상승은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민감한 사람이고,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살인 집단이 주로 감정적인 동기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살인은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상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부적 감정을 한꺼번에 표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생리적 우울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생리적 증상과 수면, 식욕 및 성욕장애 등과 같은 생리적 특징을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 경우 우울을 신체적인 형태로 경험하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체기능, 활동 및 에너지 수준의 변화, 수면장애, 성적 관심의 저하, 식욕상실과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교도소 수감 생활의 규칙적인 일상과 비교적 단조로운 일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성 살인 범죄자들에게 MMPI-2를 실시한 연구(McKee 등, 2001)에서의 결과와 유사한데, 특히 자신의 파트너를 살인한 여성들에게서 2-6 프로파일 이 나타났다. 2번 척도는 우울증 척도로 본 연구의 생리적 우울의 상승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6번 척도는 편집증 척도로 이 척도가 PAI의 망상척도와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원한의 상승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치료고려척도를 살펴본 결과,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거부 등의 5개 하위척도 모두 평균 범위의 T점수를 보여 살인집단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경향을 찾아낼 수 없었다.

네 번째로, 대인관계 척도를 살펴본 결과, 지배성과 온정성 척도 모두 평균 범위에 해당되며, 이는 살인집단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일반인에게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주장성, 친절 및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들은 모든 척도에서 평균 수준의 점수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살인범의 성격특성이 임상적 징후를 나타낼 정도로 특이한 것이 없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점수들이 살인집단 개인의 점수가 아닌, 전체 여성 살인범의 평균 점수라는 점 때문에 특징적인 사례들이 평균으로 회귀된 결과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살인범의 하위척도들 간 비교 분석에서 특징적으로 높거나, 낮은 점수가 나타난 결과를 요약해보면, 여성 살인범들이 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독해력 결함, 무선반응, 부주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석의 신중함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검사의 답안 작성시 객관식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식으로 자신이 의견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때,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살인집단의 하위척도의 특징은 첫째,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반응을 했지만, 독해력 결함, 무선반응, 부주의, 무관심의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긍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신체기능의 저하와 활동 및 에너지 수준의 변화로 인해 수면장애, 성적 관심의 저하, 식욕상실 등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살인집단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흥분과 자극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것에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다. 여섯째, 현실 검증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고정된 자기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흥분과 자극을 추구하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고정된 자기개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나 모욕감에 대해 극단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여성 살인범들이 일상생활에서는 평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개인적 특성에서 나타난 음주상황이나, 싸움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 일시적인, 극단적인 반응으로 살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살인범들이 매우 독특한 집단적 성격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PAI를 실시하여 성격 특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여성살인범들의 개인적 성격 특성과 범행동기 및 양상은 매우 다양하여 집단적 성격 특성을 PAI 평균값으로 알아 보는 데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PAI 결과를 해석

할 때 집단 프로파일 해석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각 하위척도별 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또한 여성살인범죄자들은 모든 척도들에서 특별한 임상적 증후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척도들 간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높거나 낮은 척도들을 중심으로 결과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둘째, 연구의 도구가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여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연구의 대상자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이기에 응답의 높은 성실성을 기대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검사의 실시가 대상자들이 수감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건이전, 사건당시, 수감이후(검사시)의 심리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PAI 결과나 설문지 결과들은 이미 자신의 범행에 대한 뉘앙스를 치루고 있다는 점과 '포기' 및 수감생활의 안정성에서 오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여성 범죄자의 성격특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 범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다양한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심층적인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고, 특히 이들의 개인별 성격 프로파일을 비교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한 개인의 분노측정과 그 표출양태가 범죄와 관련이 깊음을 고려할 때, 성격특성 중 '분노' 변인만의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법무연수원 (2003). 범죄백서.
- 대검찰청 (2003). 범죄분석.
- 김상균 (2001). 여성살인범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분노특성을 중심으로, 경호경비연구 제4호, 47-63.
- 김상희 (1991).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4회 형사정책 세미나, 109-161.
- 김영환 외 (2001a). 성격평가 질문지 실시요강, 학지사.
- 김영환 외 (2001b). PAI표준화 연구: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311-329.
- 김영환 외 (2002). PAI의 임상적 해석, 학지사.
- 박경선 (1996). 여성의 특성과 여성범죄 실태분석,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진 (1999).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살인과 폭행·상해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8-11.
- 오상우 (2004). 범죄수사 및 교정현장에서의 PAI 해석과 활용. 2004년 1급 범죄심리사 중급 연수과정.
- 전영실 (2004). 여성 폭력범죄의 특성 및 대책, 교정연구 제22호, 한국교정학회.
- 정한식 (2000). 여성범죄의 증가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진우 (2004). '갈수록 태산' 여성 범죄 잔혹사: 은행털이에서 살인까지 강력범 급증. 여중생·여고생 범죄도 흉포해져', 시사저널 통권 743호. 165-177.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4) : 47-87.
- Ghitta, Weizmann-Henelius, Vappu Viemero, Markku

- Eronen (2003). The Violent female perpetrator and her victim,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33, 193-203.
- Goetting, A. (1988). Patterns of homicide among women, *Violence 3, J. Interpers*, 3-20.
- Hanna, P., Jutta, C., Maraj-Liisa, H., and Jouko, L. (2001). Personality disorders and psychoses form two distinct subgroups of homicide among female offenders,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2(2), 300-312.
- Heimer, K. and S. D. Coster (1999). The Gendering of Violent Delinquency, *Criminology*, 37(2), 277-317.
- Husain, A., Anasseril, D. E., Harris, P. W. (1983), A study of young-age and mid-life homicidal women admitted to a psychiatric hospital for pre-trial evaluation,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8, 109-113.
- Jurik, N. C., Winn, R.(1990), Gender and homicide: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who kill, *Violence Vict.* 5, 227-242.
- Kruttschnitt, C.(1993). Violence by and Against Women: A Comparative and Cross-National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8, 253-270.
- Mckee, G. R., Shea, S. J., Mogy, R. B., Holden, C. E. (2001). MMPI-2 profiles of filicidal, mariticial, and homicidal wom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3), 367-374.
-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Ogle, P. S., Maier-Katkin, D. and Bernard, T. J. (1995). A theory of homicidal behavior among women, *Criminology*, 33(2), 173-193.
- Rogde, S., Hougen, H. P., Poulsen, K. (2000). Homicide by sharp force in two Scandinavian capitals, *Forensic Sei. Int.* 109, 135-145.
- Verona, E., and J. L. Carbonell(2000). Female Violence and Personality-Evidence for a Pattern of Overcontrolled Hostility Among One-Time Violent Female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2), 176-195.

## **Criminal-Relevant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Female Murder**

**Si-Up Kim    Hye-Sun Lee    Ji-sun Sohn    Woo-Byung Chon**

**Department of Criminal Psychology, Kyonggi Graduate School**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riminal-related variables and personality of female murder. Fo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e conducted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to incarcerated female murders. The subjects are 109 female offenders in the Cheong-Ju Women's Correctional Institution. The results showed "murder group" has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additionally more than a half of "murder group" were not drinking alcohol when they committed their crimes. The victims of murder in the most of the cases were men, specially the most of them are their husbands, and it happened while Quarre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scale of "murder group" as we compared to each scale's means represented high scores in INF, PIM, DEP-P, and PAR-R. On the contrary ANT-S, SCZ-P, and BOR-I appeared low scores. Finally we discussed limitations and further approaches of this study.

*key words : female murder, criminal motivati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AI*